

# 쓰레기 없는 삶을 꿈꾸다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원하던 원치 않든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물건 하나를 사도 포장지부터 영수증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생긴다.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 환경 운동의 일환으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Zero Waste Life)에 대해 알아보자.

글\_편집실



## +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지난 4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면서 대혼란을 빚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비닐 쓰레기와 스티로폼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면서 팔 곳이 없어진 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중단했다. 며칠 뒤 환경부의 긴급조치로 재활용 업체가 다시 수거를 시작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긴급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소동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즉 쓰레기 없는 삶이다.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의 핵심은 살면서 생기는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지는 것이다. 단순히 참으며 아끼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사서 쓰되 물건 하나를 사도 현명하게 구입하고 최대한 다시 쓰는 삶을 사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다.

물론 쉽지 않다. 마트에서 별 뜻 없이 구입한 상품과 그것을 담아준 비닐봉지만 해도 집에 도착하는 즉시 생활 쓰레기가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1인이 1년에 쓰는 비닐 봉지가 370장에 달한다. 이는 독일(70장), 핀란드(4장)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 + 버리기 전에 아예 안 쓰는 삶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는 법은 쉽지만 어렵다. 먼저 무언가를 살 때부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공산품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로 포장되어 있으니 첫 걸음부터 막힌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은 장을 볼 때 대형 마트는 피한다. 대신 재래시장에 집에서 가져간 그릇에 식재료 등을 담아 온다. 외식을 해도 일회용 젓가락이나 빨대도 쓰지 않는다. 자신만의 개인 수저와 스테인리스 혹은 대나무, 종이로 만든 빨대를 사용한다. 흔히 사먹고 버리는 생수를 대신해 집에서 물을 챙겨 나오는 것도 작은 실천 법 중 하나다.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와 관련해 유명 인사를 꼽는다면 비

존슨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다.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2014, 청림Life)의 저자인 그는 1년에 1리터 정도의 쓰레기만 배출한다. 서울시민 1명이 만들어내는 생활폐기물이 연간 367kg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쓰레기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 셈이다.

그는 '덜 갖추고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하는 식품 포장이나 일회용 비닐은 처음부터 거절하고, 살림살이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쓰는 작은 실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기 위해 지렁이를 키우는 일도 별였다.

**+ 쓰지 않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는 이제 개인을 넘어 범지구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들도 플라스틱 사용 자제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입법 예고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는 다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 후손은 물론, 당장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여야 할 때다.



**TIP**

**쓰레기 줄이기 운동  
나도 동참해 보고 싶다면?**

**+ 제로 웨이스트 전문가가 말하는 쓰레기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다섯 가지 R단계**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  
(Refuse)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Reduce)



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Re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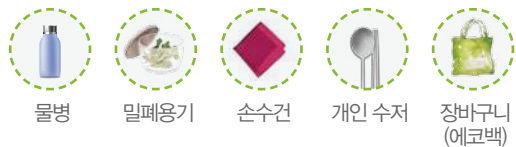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  
(Recycle)



나머지는 썩히기  
(Rot)

출처: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비 존슨

**+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준비물**



**+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 속 비닐 줄이기**

- 장 볼 때 1회용 비닐 대신 에코백, 장바구니, 종이봉투 쓰기
- 무료로 주는 비닐봉투는 거절하기
- 과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 피하기
- 망가진 우산은 고쳐 쓰고 일회용 비닐우산은 쓰지 않기
- 우산 비닐커버 쓰지 않기